



광주 서부소방, 취약가구 LED전등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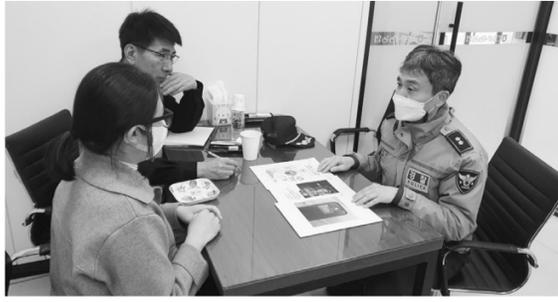
광주 서부소방 의용소방대는 지난 22일 서구 화정3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노인 등 8가구를 방문해 LED전등 무상 교체 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방서 서부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전기·소방 관련 전문가를 소지한 대원 10명이 참여해 기존에 설치된 낡은 전등을 LED전등으로 교체하고, 전기 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LED전등 무상 교체 활동은 광주 서부 의용소방대에서 5년 전부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하반기에는 풍암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서부의용소방대는 총 227명으로 구성돼 화재 현장 등에서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 각종 안전 캠페인과 대규모 행사장 안전 순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광주 남부경찰, 금융기관 보이스포싱 예방

광주 남부경찰 백운지구대와 주월파출소는 지난 25일 주월동 금융기관 6개소를 방문해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홍보활동에서 경찰은 보이스포싱 범죄 중 '대면 편취형' 수법이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현금 인출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들에게는 통화하면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고객을 주의 깊게 살피고, 고액 인출 등 보이스포싱이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경찰은 강·절도 및 날치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방범시설을 점검했다.

주월파출소 관계자는 "백운지구대 순찰팀과 협력해 현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간이 방법 진단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방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주)현농, 2년 연속 장애 학생 선수 장학금 쾌척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주)현농과 지난 25일 서구광주시장애인탁구훈련장에서 장애 학생 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7월 광주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장애인 꿈나무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금 후원에 나서기로 했던 (주)현농의 의지가 밑거름이 됐다.

(주)현농은 이날 장학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광주공공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 종목 육성 중인 이승후(전 대사대부고 1)와 이정수(한국체대 1)에 각각 1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는 대상자 규모를 확대해 이승후에게 100만원, 정다은(선광학교 3)과 송형우(선광학교 2)에게 각각 50만원을 지원

했다.

광주시청 장애인탁구팀은 (주)현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윈 포인트 레슨과 친선 경기를 갖는 등 재능기부로 후배 양성을 위한 전폭적 지원에 대한 감사사를 전했다.

김철홍 (주)현농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기부 문화 확산과 홍보에 앞장서겠다"며 "장애인 선수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2년 연속으로 꿈나무 장애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 주신 김철홍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주)현농 임직원들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한규빈 기자



"헌혈하면 할인" 씨월드고속웨리(주)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제주혈액원은 지난 25일 씨월드고속웨리(주)와 헌혈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씨월드고속웨리(주)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해 '헌혈자 예우 위한 제주-목포-진도 구간 여객운임 할인', '자발적 헌혈문화 확산', '헌혈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중훈 씨월드고속웨리(주) 대표는 "협약을 통해 헌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이 헌혈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수 광주전남혈액원장은 "지역의 생명나눔문화 확산에 함께 해주신 씨월드고속웨리(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기업들이 헌혈자 예우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전남 9개 단체 '헌혈 릴레이' 동참

'헌혈 보릿고개'로 불리는 동절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저조한 혈액 수급을 극복하기 위한 광주·전남 지역 기업·기관의 헌혈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은 26일 광주·전남 지역 9개 단체가 '70일 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 단체 헌혈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단체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일곡병원·금호타이어 광주공장·31사단 정비근무대·93여단 지역방위3대대·위아원 목포지부·전남동물위생시험소·한빛원자력본부·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 등이다. 9개 단체 임직원과 회원, 사·군민 등 약 150명은 헌혈과 함께 헌혈 독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힘썼다.

26일 기준 광주·전남지역의 혈액보유량은 4.5일분(혈액형별 △O형 4.5일분 △A형 2.7일분 △B형 7.1일분 △AB형 4.6일분)으로 보건복지부 적정기준인 5일분을 밑돌고 있다.

윤준명 기자



정귀우 장성경찰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취임

장성경찰서(서장 배상진)는 지난 25일 경찰서 3층 백양마루에서 서장 및 각 과장 등 지휘부와 경찰발전협의회 회장 및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취임식에서는 감사패와 공로패 증정과 함께 2025년 장성경찰서 주요 추진업무계획 소개 및 장성경찰과 경찰발전협의회 협력 치안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정귀우 회장은 "경찰협력단체로서 경찰의 동반자가 돼 범죄예방, 치안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할 것이며 안전하고 행복한 장성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진 장성경찰서장은 "재임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정을 다 해주신 이임 강대위 회장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리고 취임하시는 정귀우 회장님께서도 지역주민과 경찰의 가교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위해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는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협의 제언 및 소외계층 위문 봉사 등 지역사회 협력치안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장성=유병현 기자



광주교통공사, 공공기관 신규직원 대상 견학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2025년 광주시 공공기관 신규직원 60여명을 서구 마곡동 본사 종합관제실로 초청, 운전·전력기계·통신 관제의 각 분야를 알아보는 견학 프로그램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주관으로 28일까지 진행되는 광주시 통합채용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주교통공사 소개 및 관제 업무 체험, 2호선 홍보, 실제 관제사들과의 질의응답 등이 펼쳐졌다.

특히 운행 시 열차 지연, 기계 고장을 포함한 이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및 지원 사항 등 평소 경험하기 힘든 상황을 가정한 견학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실무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진산요양원, 초록우산 차량나눔 사업 선정

진산요양원(원장 김용권)은 한국엔컴퍼니·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초록우산 차량나눔 공모사업 '전기자동차 분야'에 선정돼 오늘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초록우산 차량나눔 지원사업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이 더 즐겁고 의미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국엔컴퍼니·한국타이어애펀테크놀로지와 초록우산이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현대 스타리아 승합차 또는 기아 EV3전기차(택1)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록우산재단으로부터 3312만원 지원, 친환경차 국가 및 지방보조금 958만원을 보조 받아 EV3전기차를 구입했으며 진산요양원은 차량을 활용하여 통합사회재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정신장애인의 이동편의성을 확보하고 편안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진용 기자

고정태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취임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에 고정태(사진) 치과약리학교실 교수가 취임했다.

지난 25일 전남대에 따르면 고정태 교수는 지난달 10일 치러진 제11대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선출됐다.

고정태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앞으로 2년간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고 신임 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지방대학이 직면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직원, 학생, 동창회가 하나 되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치과의사와 치의학자를 양성하고,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이 글로벌

치의학 교육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 신임 원장은 전남대 치과대학 제8회 졸업생으로, 2001년부터 전남대에

서 치의학 교육과 연구에 매진해왔다. 또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학사 운영과 연구 활동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전남대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 선도연구센터(MRC) 센터장, 의약학단 전문위원, 기초치의학협의회 및 대한골대사학회 임원을 역임해왔다.

최동환 기자